

‘예술인패스’ 어떻게 하나요?

11개 분야 예술인에 카드 발급
공연장·인터넷 예매시 할인 혜택
홍보 등 미흡해 사용자 불편
“민간 문화기관 연계 사용처 늘려야”

예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패스’가 있다.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11개 분야의 예술인, 미술관·박물관의 관장이나 설립자,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연장이나 인터넷 예매시 예술인패스 카드를 제시하면 전국 공연장에서 10~50% 내외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광주시에도 광주문화재단에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경력증명을 돕는 전담 부서가 있을 만큼 지역의 관심도 또한 높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예술인 패스의 활용처, 사용처에 있어서 홍보가 미흡해 보인다. 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전시 기관이 광주예술의 전당, 빛고을시민문화관, ACC 일부 공공의 영역에 치중돼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예술인패스 홈페이지의 ‘혜택보기’ 안내란에서 광주는 공연·전시·생활 속 할인 모든 분야에서 예술인패스 사용처가 0곳으로 나와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은 공연 50곳, 전시 4곳이 등록돼 있어 대조적이다. 서울과는 인구수와 문화예술 인프라 차이가 있어 정량적 비교가 어렵지만 부산 12곳, 대전 15곳, 경기도 16곳의 할인혜택이 공지돼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광주 안내는 미흡한 편이다.



예술인 패스에 대한 홍보 등이 미흡해 사용자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공연하는 예술인의 모습.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상 광주지역이 공란인 것과는 달리 광주에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광주예술의전당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에서 열리는 지역의 수준 높은 공연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술인패스 홈페이지에 안내가 없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공지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며 곧 시집을 출간하는 김(30)씨는 “예술인패스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광주에서 예술인패스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예술인 박(여·50)씨도 “예술인패스를 활용해 여러 공연을 보러 다니고 싶지만,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라 답답할 때가 있다”며 “민간 공연, 전시장과도 잘 연계가 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터파크에 등록되는 공연정보를 기준으로 예술인패스 할인혜택을 등록해 왔다”며 “광주지역 공연들의 정보 취합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신경 써 다음 달부터는 광주지역 할인혜택 안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1970년대 교실 재현 ‘광주는 교육이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특별한 수업’
근현대사 광주 학생 이야기 무대에
참석자들 학생 돼 일일수업 진행

1970년대 교실 풍경을 재현한 특별한 행사
‘광주는 교육이다’ 기획전시 공간과 연계해 열려
눈길을 끌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11일 진행된 ‘광주는 교육이다’ 기획전시회와 연계한 ‘특별한 수업(사진)’이 그것.

‘광주는 교육이다’ 기획전시 공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존의 공식행사 문법을 크게 탈피했다. 1970년대 교실을 재현한 공간에서 참석자 모두 학생이 돼 특별한 일일수업을 받았다.

‘특별한 수업’이라는 이름을 내건 이번 행사는

학교의 하루 일과를 그대로 옮겨와 ‘출석과 아침 조별’, ‘모둠 발표’, ‘상장 수여’, ‘종례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3개의 모둠 발표에서는 ‘광주는 교육이다’ 기획전시회 소개에 이어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광주역사를 일군 광주학생들의 이야기를 극 무대로 만들어 압도적 몰입감을 선사했다. 세 번째 모둠 발표에서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가 함께한 광주영어방송국 어린이 합창단 무대가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광주에서 근대학교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서석초등학교를 비롯해 지역 최초의 여자중등학교인 수피아여자중학교, 우리 지역민의 뜻으로 세운 광주제일고등학교의 교장과 학생대표를 비롯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13개교의 학교 관계자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 담긴 특별한 선물

ACC재단, 문화상품점 새단장
들락 시그니처·키즈 등 출시

아시아의 특징이 담긴 선물을 만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최근
문화상품점을 새롭게 단장하고 오픈했다.

재단은 독자적이면서 연결된 아시아의 문화(Dots and Lines to Asian Culture)를 뜻하는 자체 브랜드 ‘DLAC 들락’을 개발·발표했다. 브랜드 슬로건인 ‘우리들의 이야기, 아시아의 선물’을 매개로 아시아의 특징과 미를 담은 상품을 선보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매장은 상품 진열부터 프로젝트 소개를 위한 전시, 고객 휴식공간 구축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문화상품점에서는 들락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들락 시그니처’(상품 8개 품목 22종)을 새롭게 출시했으며 ACC 콘텐츠와 연계된 ‘들락 콘텐츠’, 어린이문화원 대표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을 비롯한 어린이 상품군을 묶은 ‘들락 키즈’도(5개 품목 22종)을 선보인다.

ACC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및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매개로 상품과 워크숍, 프로그램 등



을 포함하는 ‘두들락(Do! DLAC)’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세부 상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방문객들이 아시아 문화만의 개성을 느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상품점 재개점과 아울러 ACC내 복합 문화·편의시설도 7월부터 정상 운영돼 방문객들의 편의 증대는 물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회문화와 BTS의 상관관계

ACC, 7~8월 마지막주 수요일 인문강좌

‘BTS 현상’을 낳은 만큼 BTS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사회문화와 BTS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는 강좌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BTS 현상을 되짚어보는 ‘ACC 인문강좌’를 연다. 7~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ACC 극장3.

ACC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해 2개 강좌 모두 수어로 통역하며 강좌는 ACC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한다.

이번 강좌 주제는 각각 ‘BTS 현상과 대중음악’(7월), ‘BTS를 통해 본 동시대 문화’(8월)이다.

오는 26일에는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를 주제로 ‘BTS 현상’을 이야기한다. 김 평론가는 BTS의 데뷔 이후 현재까지 발매된 열여섯 장의 앨범 전 곡을 리뷰하고, 미국 현지에서 본 BTS 신드롬의 실체를 분석한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평론가는 미국팝 시장의 흐름과 케이팝의 동향을 연구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해외에 전파하는 고교 역할을 해왔다.

다음달 30일엔 경희대학교 안병진 미래문명원 교수가 ‘다양성에 대한 긍정’, ‘연락’, ‘소통’ 등 BTS가 강조해 온 철학과 메시지를 모티브로, 동시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뉴스쿨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안 교수는 KBS, SBS 등에서 미국 대선 특집 방송에 출연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BTS 데뷔 10주년을 매개로 BTS의 영향력을 사회, 문화예술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대중적인 강의를 만큼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절판 판매중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